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처음 수상한 기념비적 장면”

- 문체부 장관,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각본상 수상한 ‘몸값’ 제작진에게 축전
...“뛰어난 기량과 집념, 열정과 투혼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에 뜨거운 박수”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프랑스 현지시간으로 4월 19일(화)에 열린 ‘제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K-드라마로서 최초로 각본상을 수상한 ‘몸값’의 전우성 감독과 최병윤, 곽재민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이번 쾌거는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처음으로 수상한 기념비적 장면이다. <몸값>의 세심하고 감각적인 연출력, 짜임새 있고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은 전 세계인을 매료시켰다. 제작진과 배우 여러분의 뛰어난 기량과 집념, 열정과 투혼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인들이 K-드라마에 더 크게 열광하고 애정을 보낼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빼어난 감수성과 도전정신으로 시대가 주목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따로 붙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각본상 수상 축전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책임자	과장	최재원 (044-203-3231)
		담당자	사무관	이슬 (044-203-3238)